

실존주의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A Research on Existentialism from the Christian Worldview

최용준(Yong Joon (John) Choi)

ABSTRACT

Existentialism is a worldview which came out mainly after the two world wars and the Great Depression to overcome nihilistic worldview which basically denies any meaning of life. This worldview was first introduced by S. Kierkegaard, a Danish philosopher in the 19th century. It is divided into atheistic and so humanistic existentialism, denying the existence of God and theistic existentialism which acknowledges that of God. This worldview is still very active because it has some attractive and strong aspects but it has critically weak points, too. This article, therefore, discusses the concrete contents of atheistic and theistic existentialism first and then mentions the representative atheistic thinkers such as J. P. Sartre and A. Camus and theistic thinkers such as S. Kierkegaard, K. Jaspers and G. Marcel. After that, not only its strong aspects but also its weak and self-contradictory points are investigated. In conclusion, an attempt is made to offer alternatives to the weak points from the Christian worldview.

Keywords: existentialism, humanism, Kierkegaard, Sartre, Camus, Christian worldview

I. 서론

실존주의(實存主義, existentialism)란 인간의 실존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자유, 인격적 책임 및 주관성을 중요시하는 세계관으로 19세기 중엽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Søren Kierkegaard, 1813-1855)가 처음 주장하였다. 이 세계관은 허무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는데, 허무주의가 '자아'를 강조한 나머지 세계를 부정하기에 이르는데 반해, 실존주의는 '자아'의 실존을 강조하는 동시에 어떤 형태로는 '자아'와 세계를 연결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이는 특히 양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서구인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신뢰했던 이성, 과학 및 기술이 오히려 그들을 배신하고 마침내 잿더미만 남긴 것에 대해 비참함을 자각한 동시에 거기에 머물 수 없다는 간절한 필요에 의해 스스로 탈출구를 모색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과 가지게 되는 신념들 및 여러 상황 가운데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려 한다고 실존주의자들은 주장한다. 개인적인 선택이 반드시 객관적 진리의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은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법률이나 윤리 기준 또는 전통의 도움 없이도 자신이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다.

실존주의를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1905-1980)가 말한 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l'existence précède l'essence)."이다. 즉 인간의 본질에 관한 질문보다는 나 자신의 주체성과 실존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도 '거기에 있는 존재'라는 뜻인 'Dasein'이라는 단어로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려 했다. 그는 인간만이 존재의 의미를 질문할 수 있기에 인간은 특별하고 독보적이라고 주장한다.

실존주의는 크게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로 나뉜다. 양자의 공통점은 인간의 실존이 자유와 책임에 의해 특징 지워지며 현실은 주체와 객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양자의 차이점은 전자가 유신론에서 유래한 반면 후자는 자연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신과 인간의 실존적 만남과 관계를 중시하지만 진리는 나를 위한 진리이어야 한다. 지식도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 단지 사건의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불확실하며 중요하지도 않다. 가령 성경이 객관적 진리라기보다는 나에게 실존적인 깨우침을 줄 때에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 에밀 브루너(Emil Brunner, 1889-1966), 루돌프 볼트만(Rudolf Bultmann, 1884-1976) 및 폴 틸리히(Paul Tillich, 1886-1965)같은 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반면에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신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본질보다 실존이 앞서는 존재이므로 스스로 자기 초월에 의하여 본질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르트르는 주관세계를 선호했으며 인간은 의미를 창조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롭지만 그 모든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 이런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물질만이 영원하며 우주는 폐쇄 체계 속에서 인과율의 일체로 존재하고 역사는 인과율로 연결된 사건의 직선적 연속이지만 전체 계획은 없고 윤리는 단지 인간에게만 관계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객관세계 보다는 주체적이고 실존적인 인간이 무엇이며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다(Sire, 김현수 역, 2007: 162).

오늘날에도 실존주의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를 다룬 학자는 제임스 사이어(James Sire, 1933-2018)외에 별로 없으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주제로 논문이나 책을 출판한 학자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실존주의를 보다 깊이 고찰하되 먼저 이 세계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대표적 사상가들을 언급하고 이 세계관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장점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때 동시에 이 사상이 자체적으로 드러내는 내적 모순이나 단점들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후 이 내적인 모순이나 단점들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언급한 후 결론을 맺도록 하겠다.

II. 실존주의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1.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내용

먼저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진정으로 참된 최고의 실재는 물질이라고 본다.¹⁾ 창조주와 같은 신은 부정하고 인간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세계는 단순히 존재할 뿐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이러한 실재가 주관 세계와 객관 세계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객관적인 그것과 구별되는 주관적 자신을 인식하면서 실존적인 인간은 스스로 질문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이전의 자연주의는 객관 세계를 실제 세계로 간주하다가 결국 유물론과 허무주의에 빠졌다고 분석하면서 실존주의는 주관 세계를 더 선호한 것이다.

둘째, 인간만이 그 실존적 존재가 본질을 선행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을 현재 상태로 빚어낼 수 있다고 본다.²⁾ 객관 세계는 과학과 논리학의 세계인 반면에 주관 세계는 정신과 의식의 세계라고 주장한다. 객관 세계는 본질의 세계이며 모든 것은 각자 고유한 특성이 있지만 인간은 자기의식과 결정을 통해 자신이 어떤 인간이 될 것인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셋째,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본성과 운명에 대해 완전히 자유롭게 주장한다.³⁾ 즉 실존적 인간은 인과율의 일치체로 단혀져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 객관 세계에 비해 어떤 강요도 받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여 이상을 설정하고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 것인지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주관 세계의 주인이며 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내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본성과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가치를 창조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넷째, 매우 정교하고 빈틈없이 조직된 객관 세계는 인간과 대립 관계에 놓여 있으며 인간에게는 부조리하게 보인다.⁴⁾ 가령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부조리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객관 세계는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거기에 있는’ 세계이다. 하지만 실존적 인간에게 이러한 객관 세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므로 부조리하게 보인다. 따라서 인간은 사르트르가 주장한 것처럼 ‘구토’를 느끼며,⁵⁾ 알베르 까뮈(Albert Camus, 1913-1960)처럼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느낀다는 것이다.⁶⁾

다섯째, 하지만 이러한 객관 세계의 부조리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에 대해 반대하는 진정한 인간은 반란을 일으켜 가치를 창출한다고 본다.⁷⁾ 따라서 이들은 개인의 주관이 윤리적 판단의 중심이며 선이란 인간의 의식적인 선택 행위라고 본다. 즉 선도 주관의 일부이며 악이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실존주의는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실존주의자들은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도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기독교 유신론과 같은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역사에 전체적인 신적 섭리나 구체적인 목적성은 부인하며 역사란 단지 인과율에 의해 연결된 사건들의 무의미하고 직선적인 연속일 뿐이다. 따라서 역사에 대해 인간은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으며 실존적 인간은 다만 주체적으로 역사에 자기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나가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결국 철저히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해 있음을 알 수

1) James Sire,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 View Catalog*,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2009). 김현수 역 『기독교와 현대사상』 (서울: IVP, 2007) 164.

2) Ibid., 165.

3) Ibid.

4) Ibid., 166.

5) Jean-Paul Sartre, *Nausée*. 강명희 역. 『구토』 (서울: 하서, 2014).

6) Albert Camus, *L'Étranger*. 이정서 역. 『이방인』 (서울: 새움, 2014).

7) Sire, *The Universe Next Door*, 김현수 역 『기독교와 현대사상』 167.

있다. 즉 초월적이고 내재적이며 인격적인 신을 부인하고 인간만이 이 세상의 중심에 있으며 따라서 부조리하게 보이는 객관 세계보다 주관 세계가 더 중요하고 인간의 자유와 선택 그리고 책임성을 강조함을 볼 수 있다.

2.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기본 내용

그렇다면 무신론적 실존주의에 비해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내용은 무엇이 다른가? 이 세계관은 먼저 인격적인 신을 인정한다. 그 분은 무한하시며 삼위일체적인 인격체이시고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동시에 내재하시며 주권자이신 동시에 선이라고 본다. 그 분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했으며 그것이 개방 체계 속에서 인과율의 일치체로 운행되게 했다고 이해한다. 나아가 인간도 그 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따라서 인간은 창조주와 우주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⁸⁾ 또한 창조주는 인간과 교통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시고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타락했고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인간에게 죽음이란 창조주와 그 분의 백성과의 생활에 이르는 문이거나 아니면 영원히 그 분과 분리되는 생활에 이르는 문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윤리에 관해서는 초월적인 창조주의 속성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⁹⁾ 여기까지 보면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기독교 세계관과 매우 유사하지만 양자 간의 차이점은 전자가 인간에서 출발하는 반면 후자는 창조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주로 인간의 본성 및 우주와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며 완전한 의식을 갖게 되었을 때 소외된 우주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합리적인 이성이나 아니라 믿음의 비약에 의해 해결되는 난제라고 주장한다.¹⁰⁾

둘째로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처럼 세계를 주관 세계와 객관 세계로 구분한다. 유대교 실존주의자인 마틴 부버(Martin Buber, 1878-1965)는 이 관계를 구별하기 위해 '나-너(Ich-Du)', '나-그것(Ich-Es)'라는 용어를 사용한다.¹¹⁾ 후자에서 인간은 객체가 되게 하는 자이며 이것은 과학과 논리, 공간과 시간 및 측정 가능성의 영역이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으며 '너'가 필요하다고 부버는 주장한다. 이 '나-너'의 관계에서 한 인간은 주체로서 다른 주체를 만난다.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이야말로 참된 삶의 만남이라고 그는 본다. 여기서 일반적인 기독교 유신론과 유신론적 실존주의를 구별한다면 '죄'란 규칙을 어기는 것이기 보다는 관계를 배신하는 것이며 '회개'란 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보다는 인격적 배신에 슬퍼하는 것이다. '사죄' 또한 죄책의 사면이기 보다는 교제를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며 '신앙'이란 어떤 전제들을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한 인격자에게 자신을 위탁하는 것이다. 나아가 신앙인의 삶이란 법칙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자인 그 분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이해한다.¹²⁾

세 번째로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지식이란 주관적이며 완전한 진리는 종종 역설적이라고 본다. 객관적인 지식은 '나-그것'의 관계에 관한 것이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다. 더 필요한 지식은 인격적이고 밀접한 상호 관계로 이것은 '나-너'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인격적 차원의 진리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며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진리라고 본다. 나아가 신 앞에 서서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며 헌신하는 것은 역설적이며 완전한 진리인데 이는 대부분의 인간이 자신의 입장을 비역설적으로 진술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가령 삼위일체교리는 역설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유신론적 실존주의에서 사건의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불확실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

8) Ibid., 180.

9) Ibid., 181.

10) Ibid.

11) Martin Buber, *Ich und Du*. 김천배 역. 『나와 너』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2) Sire, *The Universe Next Door*, 김현수 역 『기독교와 현대사상』 185.

나 현재화되고 생활화된 모델, 유형, 신화 등으로서 역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령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소위 성경에 대한 고등 비평은 기적과 같은 성경의 기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의 진실성과 자증성을 의심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성경의 모범들과 도덕에 대한 영원한 진리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성경의 신적 권위나 영감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나에게 실존적으로 다가올 때 신적인 권위를 가지게 된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와는 달리 신적인 존재는 인정하지만 동시에 무신론적 실존주의와 같이 주체 중심적임을 알 수 있다.

3. 대표적인 실존주의자들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대변하는 사상가는 사르트르, 까뮈 및 하이데거 외에도 프랑스의 모리스 메를로-퐁튀(Maurice Merleau-Ponty, 1908-1961), 시몬느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 1908-1986) 등이 있다. 이들은 신을 부인하며 인간은 자유롭고 본질보다 실존이 앞서서 존재이므로 자기 초월에 의하여 본질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르트르는 주관 세계를 선호했으며 인간은 의미를 창조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롭지만 모든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 그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라는 책에서 인간은 우선 실존하고 그 후에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의 행동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 나간다고 주장하였다.¹³⁾ 따라서 그는 이론적이고 학문적이며 추상적인 것은 평가 절하하였다. 오직 인간 실존의 주체성만이 그에게는 진리였던 것이다. 까뮈의 작품 『이방인』(*L'Étranger*)은 이렇게 시작한다. “오늘 나의 어머니가 죽었다.(Aujourd'hui, maman est morte.)”¹⁴⁾ 여기서 ‘오늘’이란 실존적 시간을 말하며 ‘나의 어머니’는 나와 가장 가까운 인간이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부조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찾아나가야만 하는 나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지하 생활자의 수기』(*Записки из подполья*)¹⁵⁾ 및 『카라마조프의 형제들』(*Братья Карамазовы*)을 출판했는데 후자에서 만일 신이 죽었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까지 말했으며¹⁶⁾ 까뮈도 『페스트』(*La Peste*)에서 같은 주장을 했다.¹⁷⁾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로는 먼저 키에르케고르가 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는 당시 독일 관념론 철학자 헤겔(Georg W. F. Hegel, 1770-1831)의 사상과 덴마크 루터교회의 무의미한 형식주의에 반대하면서 신앙의 본질, 기독교회의 제도, 기독교 윤리와 신학, 그리고 삶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실존적 감정 같은 주제들을 다루었다. 그는 대표작이자 실존주의 철학의 탄생을 알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Enten-Eller*)¹⁸⁾를 비롯해 『반복』(*Gjentagelsen*)¹⁹⁾, 『공포와 전율』(*Frygt og Bæven*)²⁰⁾, 『철학적 단편』(*Philosophiske Smuler eller En Smule Philosophi*)²¹⁾ 및 『불안의 개념』(*Begrebet Angest*)²²⁾ 등 여러 책들을 출판하면서 각 개인의

13) Jean-Paul Sartre, *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 방곤 역.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서울: 문예출판사, 2013).

14) Albert Camus, *L'Étranger*. 이정서 역. 『이방인』, 1.

15) Достоевский (도스토예프스키). *Записки из подполья*. 이동현 역. 『지하생활자의 수기』 (서울: 문예출판사, 1998).

16) Достоевский (도스토예프스키). *Братья Карамазовы*. 김연경 역.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서울: 민음사, 2012).

17) Albert Camus, *La Peste*. 김화영 역. 『페스트』 (서울: 민음사, 2011).

18) Søren Kierkegaard, *Enten-Eller*. 임춘갑 역. 『이것이냐 저것이냐』 (서울: 다산글방, 2015).

19) Søren Kierkegaard, *Gjentagelsen*. 임춘갑 역. 『반복』 (서울: 다산글방, 2018).

20) Søren Kierkegaard, *Frygt og Bæven*. 임춘갑 역. 『공포와 전율』 (서울: 다산글방, 2018).

21) Søren Kierkegaard, *Philosophiske Smuler eller En Smule Philosophi*. 표재명 역. 『철학적 단편』 (서울: 박영사, 1985).

삶이 고유하며 인간이 실존함을 주장하였다.

독일에는 1932년에 『철학』(*Philosophie*)을 쓴 독일의 칼 야스퍼스(Karl Jaspers, 1883- 1969)가 있다.²³⁾ 이 책은 3권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기 철학이 세계 자체에로 자기를 방향 짓는 ‘철학적 세계정위(世界定位)(Philosophische Weltorientierung), 자신에 대해 객관적 대상으로 과학적 방법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실존의 해명을 탐구한 ‘실존개명(Existenzerhellung)’ 그리고 단순한 실존주의 철학에 머물지 않고 ‘초월자’의 형이상학을 지향하는 ‘형이상학(Metaphysik)’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처럼 그는 철학하는 것이 단지 일정한 체계적 학설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식을 근거로부터 변혁시켜 존재방식을 전환하고 해방하는 것이며 따라서 철학하는 것에 의해 비로소 실존적 인간은 본래적인 것을 자각하고 객관존재의 세계가 투명해지며 근원적 존재가 지각된다고 보았다.

그 외에도 프랑스에는 가브리엘 마르셀(Gabriel Honoré Marcel, 1889-1973)이 있다. 그가 1914년에 출판한 『실존과 객체성(客體性)』(*Existence et objectivité*)은 20세기 최초의 실존주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제 1차 세계 대전 중에는 구호원으로 종군하며 인간존재의 비극을 몸소 체험한 후 추상적인 철학에 만족하지 못하고 1929년에 가톨릭에 귀의했다. 기타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철학자들로는 앞서 언급한 마틴 부버 외에 엠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1906-1995) 등이 있다.

4. 실존주의의 장점들

그렇다면 실존주의 세계관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다. 첫째로 실존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조한다. 다른 것들은 특정한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으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망치는 못을 박는데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것이 망치의 본질이며 그 결과 만들어진 망치는 존재한다. 즉 사물은 본질이 실존에 앞선다. 그리고 이 망치가 부러지거나 고장 나면 다른 망치로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특정한 목적에 의해 규정될 수 없으며 그저 존재할 뿐이라고 본다. 사람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삶의 방향이 정해진 상태로 태어나지 않으며 그 자유로움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르트르가 말한 바, 실존이 본질에 앞서며 따라서 인간은 다른 존재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가치와 존엄성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존주의는 허무주의 약점을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허무주의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허무를 극복하려고 했으나 결과론적으로 볼 때 매우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 허무주의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긍정적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시도했으며 이것이 양차 세계대전 이후 방황하는 현대인들이 큰 매력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도 6.25 전쟁을 겪은 후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아 《현대문학》, 《자유문학》, 《문학예술》, 《사상계》 등의 문예지들은 이 세계관을 많이 다루었다. 그 결과 소설의 형식과 내용도 많이 변화되어, 한계상황과 인간심리에 대한 묘사가 치밀해졌다. 대표적인 문학가들로는 이범선의 『오발탄』²⁴⁾과 오상원의 『유예』²⁵⁾가 있다. 현대 한국의 일부 지식인들은 여전히 사르트르에 심취하여 연구하고 있다.²⁶⁾

둘째로 실존주의는 인간이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한다. 다시 말해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함으로 인간이 가진 잠재적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앞서 사르트르의 사상에서도 밝혔지만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 키에르케고르도 단지 감각적인 쾌락을 좇는 삶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책임지

22) Søren Kierkegaard, *egrebet Angest*. 임춘갑 역. 『불안의 개념』 (서울: 치우, 2011).

23) Karl Jaspers, *Philosophie*. 이진오, 최양석 역. (서울: 아카넷, 2017). 『철학 1』 신옥희, 홍경자, 박은미 역. 『철학 2』 (서울: 아카넷, 2019). 정영도 역. 『철학 3』 (서울: 아카넷, 2019).

24) 이범선, 『오발탄』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7).

25) 오상원, 『유예』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8).

26) 한국사르트르연구회, 『카페 사르트르』 (서울: 기파랑, 2014).

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하이데거 또한 인간이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보았지만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존재임을 암시한다. 인생은 미리 디자인된 것이 아니며 본인의 결단에 따라 스스로 삶을 기획하고 창조해 가는 능동적인 자세로 살아갈 때 어떠한 존재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스티븐 스피버그(Steven Spielberg)는 영화감독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의 삶의 목표였다고 본다. 그는 17세가 되었을 때 영화감독이 되기로 결단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매일 양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걸으며 마치 그가 전문 영화감독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스튜디오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만나주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는 여러 유명한 영화들을 만들어내었다. 즉 그는 그의 미래를 의지적으로 선택하였고 행동으로 옮겨 그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켰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존주의는 인간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다. 인생이 미래를 향할 때, 생의 종착역은 죽음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욱 나이가 많아진다. 특히 우리는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욱 소중한 것이다. 실존주의는 이러한 죽음과 한계를 철저히 인식하기에 더욱 현실적인 삶의 방법을 제시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즉 죽음을 피하기보다는 그것을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더 나은 이해를 나름대로 진지하게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존주의자들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종류의 부조리에 대해 그것을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면으로 부딪히면서도 자신의 실존적 가치를 잃지 않고 나름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까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들도 절대적인 존재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려고 노력했다. 이처럼 실존주의는 인생을 B(Birth, 탄생)와 D(Death, 죽음) 사이에 C(Choice, 선택)이라고 요약하며 개인의 독립성과 선택에 의한 책임성을 강조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나름대로 실존주의 세계관이 가진 장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실존주의의 단점들

그렇다면 실존주의의 단점들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살펴보겠다. 먼저 이 세계관은 인간의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보므로 결국 유아론(唯我論, solipsism)으로 귀결되기 쉽다는 것이다. 나아가 자신만의 생각을 절대화하다보면 결국 각 개인만이 가치의 결정자이므로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사는 사람 수 만큼 많은 가치관들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 어느 가치가 옳은지 구별하기 어렵고 모든 가치관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사르트르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상호 인식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그리 쉽지는 않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정하려고 할 경우 상호 이익이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선이고 그 선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답하기가 쉽지 않다. 유아론적 실존주의는 결국 객체와 객관적 진리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가치관은 결국 나중에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내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항상 즐겁고 쉬운 일은 아니다. 다시 말해 실존적 존재란 마치 외딴 섬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한 것과 비슷하다. 실존주의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라고 요구한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자유를 하나의 저주로 이해했다. 따라서 실존주의는 분명한 삶의 방향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실존주의의 두 번째 약점으로는 공동체라는 사회적 가치를 자칫 간과하기 쉽다는 것이다. 실존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너무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개인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다소 과소평가한다. 가령 한 공동체의 일원이 자신의 자유만 지나치게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와 동일한 자유와 권리를 요구할 것이며 따라서 이해관계가 상호 충돌할 수 있다. 그 결과 그들이 속한 사회는 더욱 불안해지고 무질서해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실존주의는 아무래도 개인의 실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실존이 본질에 앞서며 따라서 개인이 공동체에 앞선다고 말할 수 있다. 개개인의 이해관

계나 관심사가 공유될 수 있는 동질적인 집단일 경우에는 이 세계관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들이 한 공동체를 형성할 경우에는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로 실존주의는 왜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인간이 주관적 결정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가령, 미국에 20세기 초반에 경제대공황이 오자 실업률이 급증했고 이는 세계적으로 큰 재앙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실직자들이 파산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다른 예로 전쟁 중에 태어난 고아들을 상상해 보면 그들은 전쟁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도 아니며 그들은 그 상황을 극복할 능력도 없다. 따라서 모든 현상을 개인의 행동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전쟁고아들로부터 어떤 실존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실존주의적 태도는 부조리한 현실을 개인적으로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므로 그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을 제시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대공황이나 세계 대전과 같은 사회 문제들에 대해 실존주의는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그 상황에 직면하여 주체적인 결단을 내릴 것만 촉구하므로 정부의 정책이나 국민들의 여론 수렴을 통한 문제의 극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신론적 실존주의와 유신론적 실존주의 간에도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정하는 면에서 다양한 긴장이 존재할 수 있다. 가령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상실한 인간이 소외를 느끼는 것이므로 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반면 하이데거는 존재론 자체를 주로 다루면서 인간의 주체성 상실의 원인이 인간 문명 때문인지, 자본주의의 체제모순 때문인지, 또는 역사적 존재로서 인간 때문인지 분명치 않으며 그가 미래의 죽음에 대한 의식을 실존의 결정적 계기로 포착한 점에서 그의 원인분석은 인간존재에 대한 본질적 분석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6. 실존주의의 단점들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

그렇다면 이러한 실존주의의 단점들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가? 먼저 실존주의가 지나치게 유아론적이 되기 쉽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은 주관세계와 함께 객관세계도 균형 있게 강조한다. 나의 실존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객관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향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세계관의 출발점을 나 자신에게 두기보다 더 초월적인 절대자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만물의 기원을 우연이라고 보기에 객관 세계는 전부 부조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지적인 설계자를 가정한다면 객관 세계는 창조주의 지혜와 신성을 나타내는 장엄한 작품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세계관은 지나친 유아론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현실을 단지 부조리하게만 보기 보다는 인간 자신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비판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품 안에 이미 부조리한 면이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실존주의는 엄격한 자기비판도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있는 부조리한 부분들에 대해 깊이 통찰할수록 지나친 주관성에 함몰되지 않고 구속적 세계관에 의해 보다 객관성 있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으며 함께 올바른 삶의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삶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의미 있고 보람찬 여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공동체성이 약한 실존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기독교 세계관은 상호연대성을 강조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존주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강조하기가 매우 어려운 세계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인들이 모여 있는 사회는 자칫 모래알처럼 서로 협력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인간은 원래 사회적 동물이며 서로 사랑하면서 더불어 섬기며 살아가도록 지음 받은 존재임을 성경적 세계관은 강조한다. 부버가 말한 것처럼 ‘나와 그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가 이처럼 건강하게 이루어질 때 그 사회는 더욱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건강한 가정과 지역 공동체는 그 국가에도 매우 필요한 기본 단위이다. 특히 현대와 같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 그리고 언어 등이 공존하는 글로벌한 시

대에는 자칫 개인주의가 더 커질 위험이 있지만 그럴수록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개인과 함께 개개인이 모인 공동체를 보다 유기적으로 이해할 때 연대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연대성이 강한 사회일수록 사회 안전망도 더 강력하게 구축되어 개인적인 어려움도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개인이 주관적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실존주의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다른 설명과 대안도 가능하다. 개인에게 닥친 여러 불행한 사건들을 단지 불행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을 단지 직면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꾸준한 노력과 함께 속한 공동체의 지원을 통해 극복해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령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주변의 도움으로 더 가치 있는 많은 일들을 하는 예들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무신론적 실존주의와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기독교 세계관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들에게 이 세상은 매우 부조리하게 보인다. 그것은 그 세계관의 전제가 무신론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다. 반대로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궁극적인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부조리하게 보이는 세상을 더 큰 긍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즉 키에르케고르가 말한바 '신앙의 도약'이 가능한 것이다. 절대자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다면 나는 그 분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심지어 까뮈가 말한바 '어머니의 죽음'도 절망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소망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존주의를 보다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르트르처럼 '인본주의'적으로만 접근하기 보다는 유신론적 실존주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유신론적 실존주의도 지나치게 주체 중심적인 것이 사실이다. 만일 이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처럼 역사적 사실과 객관 세계를 동시에 인정하면서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진다면 보다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이어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한다(Sire, 김헌수 역, 2007: 194-95). 먼저 이 세계관은 기적은 무조건 불가능하며 또한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 루돌프 볼트만(Rudolf Bultmann, 1884-1976)은 폐쇄된 우주라는 자연주의의 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였기에 이렇게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다는 연구가 많이 나와 신뢰가 많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실존주의적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대부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한다.

두 번째로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결국 신화와 상징을 기반으로 신학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령 뉴질랜드의 신학자 로이드 기어링(Lloyd Geering)이 쓴 작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단지 소망의 상징이라는 것이다.²⁷⁾ 하지만 부활 사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것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정한 의미는 진정한 사건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적 근거를 포기하게 된다면 진정한 신앙을 갖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기독교적 세계관은 매우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전자가 의미의 근거가 되는 사실성을 포기한 반면 후자는 그것을 견지한다. 만약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성들을 포기한다면 결국 그에 대한 의미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유신론적 실존주의도 결국은 다시 허무주의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며 또 다른 출구를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III. 결론

27) Lloyd Geering, *Resurrection: A Symbol of Hope*. (Hodder & Stoughton Ltd., 1971).

본 논문에서는 실존주의라고 하는 세계관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그 내용은 무엇이고 대표적인 사상가들은 누구인지 살펴보았다. 실존주의는 다른 세계관들과는 달리 무신론적 실존주의와 유신론적 실존주의라고 하는 뿌리가 다른 두 세계관이 합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 전자는 인본주의에 기초하면서도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발전한 것인 반면 후자는 기독교 유신론에 기반을 두면서 죽은 정통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둘 다 주관주의적 경향을 띠면서, 철학을 객관에서 분리시켰다는 점에도 공통점이 있다. 이 세계관은 신의 초월성은 인정하되 내재성은 부인한 이신론(理神論 deism)과 신의 초월성 및 내재성 모두 거부한 자연주의(自然主義, naturalism)가 낳은 허무주의(虛無主義, nihilism)를 극복하기 위해 부조리한 삶 속에서도 나름대로 의미를 주체적으로 창조하기 위해 몸부림쳤다. 특히 양차 대전과 경제 공황이 낳은 세계관적 혼돈과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세계관이 등장하여 큰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 특히 개인의 자유의지와 선택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한다. 비록 인간의 삶이 여러 가지 고통과 불안으로 불완전하고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실존주의자들은 삶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고 실존적으로 창조해 나가려고 노력한다. 여기서 이들이 가장 반대하는 것은 타자나 사회가 한 개인에게 일정한 신념이나 가치 또는 규율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을 파괴하는 것이며 인간을 권력욕의 희생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여기서 인간은 비인간화되며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존주의는 개인의 결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것은 어떤 종교적 또는 세속적 가치들보다 앞선다고 주장한다.

이 세계관이 가진 나름의 강점들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조하며, 인간이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인간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본질적으로 여러 약점들을 가질 수밖에 없음도 지적했는데 먼저 이 세계관은 결국 유아론으로 귀결되기 쉬우며, 따라서 공동체라는 사회적 가치를 자칫 간과하기 쉽고, 왜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인간이 주관적 결정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며 무신론적 실존주의와 유신론적 실존주의 간에도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정하는 면에서 다양한 긴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관적 실존에 집착하다 보니 객관적 진리성을 상실한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실존주의 세계관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은 이론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즉 실존주의가 지나치게 유아론적이 되기 쉽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은 주관세계와 함께 객관세계도 균형 있게 강조하며 공동체성이 약한 실존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기독교 세계관은 상호연대성을 제시한다. 나아가 개인이 주관적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실존주의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다른 설명과 대안도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무신론적 실존주의와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기독교 세계관은 실존주의를 보다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본주의’적으로만 접근하기 보다는 유신론적 실존주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 유신론적 실존주의도 지나치게 주체 중심적인 것이 사실인 반면 기독교 세계관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 세계를 동시에 인정하면서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존주의 세계관은 현대 사회에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기독교학자들은 계속해서 이 세계관에 대해 올바르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희 역. (2014). 『구토』 Sartre, J. P. *La Nausée*. 서울: 하서.
- 김연경 역. (2012).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Достоевский (도스토예프스키). *Братья Карамазо* *ВЫ*. 서울: 민음사.
- 김천배 역. (2000). 『나와 너』 Buber, M. *Ich und Du*.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김현수 역. (2007). 『기독교와 현대사상』 Sire, J. W. (2009).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 View Catalog*. 서울: IVP.
- 김화영 역. (2011). 『페스트』 Camus, A. *La Peste*. 서울: 민음사.
- 방곤 역. (2013).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Sartre, J. P. *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 서울: 문예출판사.
- 오상원. (2008). 『유예』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이동현 역. (1998). 『지하생활자의 수기』 Достоевский (도스토예프스키). *Записки из подполья*. 서울: 문예출판사.
- 이범선. (2007). 『오발탄』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이정서 역. (2014). 『이방인』 Camus, A. *L'Étranger*. 서울: 새움.
- 이진오, 최양석 역. (2017). 『철학 1』 신옥희, 홍경자, 박은미 역. (2019). 『철학 2』 정영도 역. (2019). 『철학 3』 Jaspers, K. *Philosophie*. 서울: 아카넷.
- 임춘갑 역. (2015). 『이것이냐 저것이냐』 Kierkegaard, S. *Enten-Eller*. 서울: 다산글방.
- 임춘갑 역. (2018). 『반복』 Kierkegaard, S. *Gjentagelsen*. 서울: 다산글방.
- 임춘갑 역. (2018). 『공포와 진율』 Kierkegaard, S. *Frygt og Bæven*. 서울: 다산글방.
- 임춘갑 역. (2011). 『불안의 개념』 Kierkegaard, S. *egrebet Angest*. 서울: 치우.
- 표재명 역. (1985). 『철학적 단편』 Kierkegaard, S. *Philosophiske Smuler eller En Smule Philosophi*. 서울: 박영사.
- 한국사르트르연구회. (2014). 『카페 사르트르』 서울: 기파랑.
- Geering, L. (1971). *Resurrection: A Symbol of Hope*. Hodder & Stoughton Ltd.
- Sire, J. W. (2009).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 View Catalog*,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실존주의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최용준 (한동대학교)

실존주의란 모든 삶의 의미를 부정하는 허무주의적 세계관을 극복하기 위해 주로 양차 세계대전 및 경제 공황 이후 생겨난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세계관은 19세기에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실존주의와 신을 인정하는 유신론적 실존주의로 나뉜다. 이 실존주의는 지금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나름대로 매력적인 장점들이 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단점들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이 실존주의의 내용을 무신론적 실존주의와 유신론적 실존주의로 나누어 각각 구체적으로 고찰한 후 사르트르 및 까뮈 같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과 키에르케고르, 야스퍼스 및 마르셀과 같은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을 언급한다. 그 후 이 세계관의 장점들을 먼저 생각해 본 후 이 사상이 자체적으로 드러내는 내적 모순이나 단점들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 단점들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 언급한 후 결론을 맺는다.

주제어: 실존주의, 인본주의, 키에르케고르, 사르트르, 까뮈, 기독교 세계관